

# 슬로시티 상주의 운영방안과 주민참여\*

## Participatory Planning for Operating Slowcity Sangju

도경록\*\*

Kyung Rok Doh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etter ways for operating Slowcity Sangju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bout Participatory planning and empirical investigation. As a form of participatory planning, survey was conducted and examined the perception of residents toward importance of different sub-plans in operating Slowc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idents in Sangju have high level of preference on the economy related plans such as adding values to local products by applying the name of Slowcity to their resources. In addition, the more expectation and understanding to slowcity they have, the more interested in the participatory process and slowcity planning the residents become. Consequent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required for successful participatory planning of Slowcity to building an association for operating Slowcity with local peoples.

주요어(key words): 슬로시티(Slowcity), 상주(Sangju), 주민참여  
(Participatory Planning)

---

\* 이 연구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외래교수. e-mail: roadtokr@gmail.com

## 1. 서론

2011년 6월 25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를 통해 상주시의 함창면, 공검면, 이안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다. 이에 상주시는 10월 14일, 국제슬로시티 선포식을 거행하여, 슬로시티의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슬로시티로서의 성장을 위한 이러한 외형적 절차와 과정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슬로시티로서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상주의 행보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선 슬로시티의 운영이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생태적 환경의 보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복잡한 슬로시티의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강신겸 & 도경록, 2011). 실제, 슬로시티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느림' 또는 '개발속도의 제한'이라는 이념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의 수립과 순차적 실행계획이 필수적이며, 주민교육과 중간평가 등 절차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다(장희정, 2007; 조영대, 최상희, 장인석, & 박경문, 2007). 더욱이 개발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개발의 항목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힘든 것(강신겸 & 도경록, 2011)으로 보고되고 있어, 슬로시티의 운영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마련과 실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제 슬로시티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상주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과정의 모색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슬로시티 상주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고민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늘날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은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개발정책과 목표의 정당성확보, 정책실행의 효율성제고와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이유로 급속히 성장해왔다(강신겸, 1999; Yuksel, Bramwell, & Yuksel, 1999; 홍성화, 2003; 이연택, 2004; Jamal, 2011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개발 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련된 이슈들은 주민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는 이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적인 오류들은 주민참여를 정책과정의 일부분으로 형식화 시키거나 주민참여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Timothy, 1999; Tosun, 2000; 이연택, 2004). 즉,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참여과정과 사후승인을 강요하는 참여의 방법, 지역 및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전문성부족, 중앙집권적 권력의 구조와 법적 근거의 미비, 부족한 재정(Timothy, 1999; Tosun, 2000, 안종철 & 이성호, 2003; 문성민, 2004) 등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를 가로 막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과 정책실행의 효율성제고라는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슬로시티의 운영과 주민참여를 둘러싼 이러한 현실적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슬로시티 상주의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슬로시티 상주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가치와 전략적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자 한다. 슬로시티의 성장에 요구되는 가치와 세부 사업들의 내용을 이론적 고찰과 상주의 현황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중요성 인식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근거로 하는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전략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는 슬로시티의 운영과 추진 전략에 대한 지역주민의 중요성 인식과 선호를 슬로시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와 기대정도,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슬로시티에 대한 지역주민의 서로 다른 이해를 슬로시티를 위한 정책적 선택에 자연스럽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표와 접근방법은 그동안의 주민참여에 관련한 연구들이, 주민 참여 문제의 중요성과 당위성, 참여의 수준과 방법, 효율성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여,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바탕을 둔 것이다(김혜천, 2000; 윤화영 & 김동석; 김혜민, 2006). 실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는 비공식적, 사전적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안되어 온 점(Keogh, 1993; 홍성화, 2003; 안종철 & 이성호, 2003; 고승익 & 홍봉기, 2004; 안종현, 2007 등)을 고려하면,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슬로시티 상주의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선호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과제의 지리적, 내용적 범위를 상주시와 슬로시티 상주의 운영에 대한 정책적 선택으로 제한하여,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실용적인 공헌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공식의 개발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사례에 따른 적절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에 국한된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하는 최근의 주민참여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의 성향(Fallon & Kriwoken, 2003; 문성민, 2004; Jamal, 2011)에 근거한 것이다.

## 2. 이론적 고찰

### 2.1. 지역 및 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

#### 2.1.1. 주민참여의 개념과 접근법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참여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주장들 또한 다양한 연구와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주민참여는 시민의 기회와 책임에 관련하여 대응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다(Tosun, 2000; 이연택, 2004). 이러한 정의는 주민참여가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지역의 현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참여 또는 불참여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참여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고승익 & 홍봉기(2004)의 연구는 주민참여에 대해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즉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목적에 바탕을 둔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혜민(2006)의 경우, 주민참여를 “어떠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해당사업의 발의와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주민참여의 범위가 계획의 수립에서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행위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주민참여의 의미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지역주민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협력 또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에 접근을 하고 있기도 하다(Keogh, 1993; Jamal & Getz, 1995; 조승현, 1999; 강신겸, 1999; 홍성화, 2003; 신용석 & 이태희, 2005 등). 이들에 따르면, 이해집단의 개념은 특정한 조직 또는 특정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조직 또는 행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결국,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본 이해집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협력행위 또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해관계 연구들은 협력이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를 설명하고 있으며, 갈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구들은 특정한 개발을 주도하는 집단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집단의 상호 대립을 중심으로 참여를 설명한다(조승현, 1999; 강신겸, 1999). 이들의 관점은 특정한 정책 또는 개발이 진행될 때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곧 개발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한 호불호의 태도로 나타남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조승현, 1999; 강신겸, 1999; 홍성화, 2003; 신용석 & 이태희, 2005). 나아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책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불안을 조절하는 것이 정책성공의 핵심이라 주장한다(전영상 & 현근, 2011).

### 2.1.2. 주민참여의 범위와 방법

주민참여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주민참여의 범위와 대상이 특정 개발 및 정책과 관련된 전 과정,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화영 & 김동석(2008)은 생태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생태관광의 추진과 자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개발, 보전에 관련한 계획의 수립에서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혜민(2006)의 경우 또한, 주민의 참여가 사업의 발의,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등의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걸쳐 요구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하였다. 주민참여를 지역이해집단의 협력으로 설명하고 있는 홍성화(2003)의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핵심쟁점에 대한 설정의 합의, 협력방안 설정의 합의, 협력을 통한 집행의 합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연택(2004)의 경우, 관광정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의미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수익창출과정의 참여, 주민교육과정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관광대상지에서 주민교육과정의 참여는 기본적인 관광의 인식제고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문교육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는 주민의 수익창출 과정에서의 참여를 위한 지원적 수단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여, 주민참여의 범위와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책과정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문성민(2004)은 Pretty(1995)의 연구를 인용하여, 주민 참여의 유형을 가시적 참여, 수동적참여, 자문적 참여, 유인적 참여, 기능적 참여, 쌍방적 참여, 자발적 참여의 7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고승익 & 홍봉기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지역주민의 방법을 제도적 방법(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심의회 등)과 비제도적 방법(간담회, 세미나, 주민협의회, 주민투표)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의 실천적 방안으로 Keogh(1993)와 홍성화(2003)는 지역단위의

이해집단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조사, 핵심집단 인터뷰, 워크숍 등의 방법들을 제시했으며, 김혜천(2000)은 주민투표 또는 주민 발안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2.1.3. 선행연구의 결과와 시사점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인식수준과 참여정도를 조사한 김혜천(200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30%가 도시계획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계획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인지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 응답자의 36%만이 공청회 또는 지역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적이 있고, 48%의 응답자는 공청회의 개최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부산권의 관광단지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한 안종철 & 이성호(2003)의 연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조성사실만을 인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공청회, 반사회, 설문조사의 방법들이 단순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조사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의 기회로 활용되어져야함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안종현(2007)의 연구의 경우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지역주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으며, 교육의 참여 84.4%, 다름 마을 견학 73.3%, 설문조사 참여 51.1%등 지역

주민의 참여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지역 개발 또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의 지역단위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내용이 지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인지도가 확연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생태관광개발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윤화영 & 김동석(2008)의 연구의 경우에서 응답자는 생태관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25%, 모른다 36.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44.9%, 그렇다 38%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개발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의 내용이 본인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심과 이해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 및 기대정도가 참여의 자발성이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개발에 있어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내세우거나, 공청회 및 설문참여 등의 간접적인 참여방안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슬로시티 추진과정에서의 전략적 목표설정

### 2.2.1. 슬로시티의 개념과 목표설정

슬로시티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전통문화를 보존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도시화를 지양하고,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효율성'과

‘속도’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역성, 전통성에 기초한 생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하는 대안적 지역발전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조영태, 최상희, 장인석, & 박경문, 2007; 박희정, 장희정, & 손대현, 2008). 슬로시티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만의 독특한 브랜드의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자원의 상품화 및 이를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박희정, 장희정, & 손대현, 2008). 또한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다른 슬로시티와의 연합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증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확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희정, 2007).

성공적인 슬로시티의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슬로시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개발의 기준들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과 지역민의 전통 생활양식의 상품화,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소프트 프로그램 및 이벤트의 활용, 자연환경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 대체 에너지자원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개발, 건강한 먹을거리의 제공을 핵심요소로 지목하고, 그 외, 바람직한 개발의 전제조건들로 개발과정에서 대한 주민의 참여와 리더십, 교육활동과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장치의 마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협력,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원, 지역전문가의 양성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조영태, 최상희, 장인석, & 박경문, 2007).

### 2.2.2. 슬로시티 상주의 현황과 세부 사업 설정

상주시의 홈페이지([www.sangju.go.kr](http://www.sangju.go.kr))에 따르면, 2009년 9월 슬로시티 추진을 위한 최초협의를 시작으로, 2010년 1월 슬로시티 설명회 개최, 2010년 6월 슬로시티 신청서 제출, 2010년 10월 국제슬로시티연

맹 실사, 2011년 3~6월 : 지역주민 교육, 2011년 6월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개최를 통한 슬로시티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슬로시티를 지역에 도입하였다.

현재 상주시는 시정 전반에 슬로시티의 철학, 느낌의 미학의 접목을 통해, 환경, 기초인프라, 도시경관 및 미관, 토산품의 가치화, 관광객 수용, 시민참여와 인식확대의 6개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슬로시티 만들기를 목표로 슬로시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으로는 ① 환경, 보건, 의료, 복지, 문화, 체육 등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②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도예/옹기 등 장인의 보호 및 육성, ③ 유기농 및 특화작목 확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 극대화, ④ 빵/오디/누에(고치)/명주/패션을 아우르는 전통산업클러스터 조성, ⑤ 상안사 슬로푸드 체험단지를 거점으로 사찰음식, 지역음식 육성, ⑥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기초한 전통 슬로푸드 재현, ⑦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슬로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 ⑧ 공검지 램사르 논습지 등록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주시는 상주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향상 및 홍보효과 극대화,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 유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슬로시티가 규정하는 슬로시티에 요구되는 정책들과 선행연구들(김사영, 2009; 전경숙, 2010; 박경문, 임은영, & 조영태, 2010)을 통해서 나타난 사업전략, 그리고 상주시가 계획한 세부사업들을 종합하여, 주민의 선호를 조사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안건들을 다음의 26가지의 사업으로 정리하였다. 지역개발분야에서 논의되어온 사례와 시각을 적용하여, 슬로시티의 추진과 관련된 사업들과 주민의 선호들을 설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슬로시티 상주의 발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세부사업항목

구분	세부사업항목
관광객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li> <li>•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li> <li>• 체험장, 방문객 센터 등의 시설 조성</li> <li>• 숙박시설 보충 및 개선</li> <li>• 지도·안내판 등 안내시설 정비</li> <li>• 축제 및 이벤트 개최</li> <li>• 외래관광객 유치</li> </ul>
지역보전과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과 연계 판매</li> <li>• 향토음식 개발 및 판매</li> <li>• 자연생태자원 보전</li> <li>• 지역과 지역특산물의 홍보 마케팅</li> <li>• 마을의 주택 및 생활 환경 정비</li> </ul>
친환경 생활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활용확대</li> <li>• 유전자 변형 농산물재배 금지 및 유기농 농산물 재배확대</li> <li>• 공공구조물 정비 및 친환경건축물 조성</li> <li>• 친환경 교통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확대</li> </ul>
슬로시티 추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비전과 장기계획의 수립</li> <li>• 해설가 등의 전문가와 지도자 양성</li> <li>• 슬로시티 정신의 홍보 및 지지확대</li> <li>• 추진위원회 등 추진조직 구성</li> <li>•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책적 지원</li> <li>• 관련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li> <li>• 슬로시티 평가체제 도입</li> </ul>
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의식전환과 주민교육</li> <li>• 주민 화합을 위한 공간 및 행사확대</li> <li>•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li> </ul>

### 3. 연구방법

#### 3.1. 조사 및 분석의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함창읍, 이안면, 공검면을 중심으로 하여 상주지역의 시민들과 관광관련 사업체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전에 훈련을 받은 면접조사원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주민의 의견, 인식 파악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기초적인 주민참여 행위로서의 이미지를 지닌다. 따라서 조사자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생태환경대학 학생들로 구성하여, 설문조사의 요령과 응대방법 뿐만 아니라 슬로시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한 뒤에 조사에 투입되었다. 조사의 주요한 내용은 슬로시티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 및 세부안건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조사,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와 기대정도 및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에서 27일의 12일간 진행되었다. 함창읍이 11월 16일, 이안면과 공검면은 11월 25일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주시 공무원과 사업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11월 21일에서 27일 사이 일주일간 이루어졌다. 지역민의 집단별 이해의 차이를 구분하기위해 설문지의 배부는 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등 핵심지역에 각 40부, 상주지역 100부(관광관련 사업체 포함), 지역 공무원 50부 등 총 27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그러나 이들 슬로시티지역과 상주시의 경우, 관광사업체가 극히 적고(등록여행사 12개 업체), 관광사업체와 일반사업체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관광음식점)가 많아, 관광음식점과 숙박업, 여행사 등을 묶어 관광관련업체로 규정하고 설문지를 할당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에서 회수되지 못한 설문지 3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

지 2부를 제외하고 총 265부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연구의 주요한 분석은 SPSS 13.0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기법은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항목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응답자가 속한 집단(직업 및 거주지역 기준)과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 및 기대정도에 따른 사업의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으로 이루어 졌다.

### 3.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20대와 50대가 26.4%와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14.3%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거주기간은 21년 이상이 5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가운데 5년 이하도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구의 이동이 적은 지역의 특성상 지역에 오래 거주한 이들의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 43.4%와 대졸 43.0%였으며, 응답자중 남자는 66.0%, 여자는 33.6%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속집단의 경우, 공무원(상주시와 슬로시티 지역의 담당공무원) 23.4%, 관광사업체(숙박, 여행, 음식점 등의 사업체 운영 및 종사자) 24.5%, 슬로시티 핵심지역거주자(공검, 합창, 이안면내 거주자) 21.5%, 슬로시티 주변지역거주자(상주시 및 문경 또는 기타 주변지역거주자) 30.2%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할당과 배분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나이	빈도(%)	거주기간	빈도(%)
20대	70(26.4)	5년 이하	61(23.0)
30대	43(16.2)	6~10년	14(5.3)
40대	69(26.0)	11~15년	7(2.6)
50대	45(17.0)	16~20년	22(8.3)
60대 이상	38(14.3)	21년 이상	144(54.3)
학력	빈도(%)	소속집단	빈도(%)
중졸	21(7.9)	공무원	62(23.4)
고졸	115(43.4)	관광관련사업	65(24.5)
대졸	114(43.0)	핵심지역	57(21.5)
대학원이상	12(4.5)	주변지역	80(30.2)
성별	빈도(%)		
남	175(66.0)		
여	89(33.6)		

\* 총 유효표본은 265이며,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은 이유는 결측값 때문임.

### 3.3. 세부사업내용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상주시의 현황을 바탕으로 하는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 조사에 앞서, 세부사업의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슷한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이며 또한 이후 이루어질 분산분석 등의 실행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26개의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분석의 결과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우선 요인 1은 ‘슬로시티 운영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로, 아이젠값 8.53, 분산설명력 18.45%, 신뢰도

.857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들로는 전문가양성, 슬로시티정신 홍보, 추진 조직구성, 정책조례제정, 네트워크형성, 슬로시티 평가체계구축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관광상품개발, 역사문화자원 보전, 체험장 및 방문센터건립, 친환경농업장려, 향토음식개발, 자연생태보전 등 기존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사업의 분류에서는 지역보전과 특화 및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분류되었던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이들을 '지역특성화' 관련 사업으로 새로이 분류하였다. 요인 2의 아이겐값은 2.090, 분산설명력 17.65%, 요인의 신뢰도는 .85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친환경생활기반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로 아이겐값 1.417, 분산설명력 11.24%, 신뢰도 .821이었다. 세부항목으로는 대체에너지 활용, 유기농 농산물 생산장려, 친환경 건축물 조성,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었다. 요인 4는 '주민참여'에 관련된 항목들로 주민교육확대, 주민참여를 위한 행사의 장려, 주민 참여제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겐값 1.154, 분산설명력 8.98, 신뢰도 .821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숙박시설의 개선, 축제 및 이벤트 개발,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기반조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적재치는 .945, 분산설명력 7.97%, 요인의 신뢰도는 .671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기존의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되었던 분류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관광사업의 분야로 여겨지던 관광상품의 개발, 체험장 및 방문센터의 조성, 역사문화자원보전 및 복원 등의 항목들이 지역의 응답자들에게는 관광개발사업의 일부라는 인식보다는 지역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요인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본 중요도의 순위는 지역특성화가 3.97로 가장 높았고, 주민참여 3.77, 관광기반조성 3.73, 슬로시티 운영체계구축 3.60, 친환경생활기반 조성이 3.56의 순으로 나

타나 일반적으로 지역특성화와 관광기반조성 등 사업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의 지각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친환경사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는 비교적 낮은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3〉 슬로시티 상주의 세부사업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항목	요인1	아이젠값	분산 설명력	요인별 신뢰도
슬로시티 운영체계 (평균 3.60)	전문가양성	.680	8.536	18.450	.857
	슬로시티정신홍보	.665			
	추진조직구성	.685			
	정책조례제정	.738			
	네트워크형성	.634			
	평가체계구축	.685			
지역특성화 (평균 3.97)	관광상품개발	.751	2.090	17.648	.857
	역사문화자원보존	.754			
	체험장건립	.682			
	친환경농업장려	.663			
	향토음식개발	.653			
	자연생태보전	.615			
친환경 생활기반조성 (평균 3.56)	대체에너지활용	.807	1.417	11.239	.806
	유기농산물장려	.753			
	친환경건축장려	.651			
	친환경교통시스템	.581			
주민참여 (평균 3.77)	주민교육확대	.548	1.154	8.981	.821
	주민참여행사장려	.659			
	주민참여제도확립	.612			
관광기반조성 (평균 3.73)	숙박시설개선	.540	.945	7.966	.671
	축제행사개발	.798			
	외래관광객유치	.607			

KMO and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918.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배리맥스 직각회전

## 4. 분석결과

### 4.1.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인식

우선, 응답자의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에 대한 빈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58% 이상이 들어본 적 없다(22.3%) 또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35.8%)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슬로시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매우 잘 알고 있다 4점~들어본 적 없다 1점의 수준으로 수치화한 경우, 평균은 2.25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슬로시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정도

	빈도	구성비(%)	평균
들어본적없다	59	22.3	2.25/4.00
들어봤지만 모른다	95	35.8	
조금 알고 있다	83	31.3	
잘 알고 있다	20	7.5	
결측	8	3.0	
계	265	100.0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인식정도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5〉에 나타나고 있다. 〈표 5〉에 따르면,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지역특성화(F값 7.531, 유의수준  $p < .000$ )로 나타났다. 지역특성화요인의 경우,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슬로시티 운영체계(F값 4.112, 유의수준  $p < .01$ )이다.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이 요인에서 또한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주민참여(F값 2.648, 유의수준  $p < .050$ )이었다. 주민참여에 대한 전체 평균은 3.767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에서도 지역특성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관광기반의 구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친환경생활기반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은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는 집단 간의 차이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인식의 차이

요인	집단구분				전체 평균	F값
	들어본 적 없다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슬로시티 운영체계	3.389	3.596	3.652	3.967	3.596	4.112**
지역 특성화	3.894	3.778	4.099	4.433	3.962	7.531***
친환경 생활기반	3.398	3.516	3.623	3.828	3.547	2.089
주민참여	3.678	3.695	3.813	4.183	3.767	2.648*
관광기반	3.684	3.645	3.763	3.983	3.719	1.355

\* $p < .05$ , \*\* $p < .01$ , \*\*\* $p < .001$

#### 4.2. 슬로시티에 대한 기대정도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인식

슬로시티가 상주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 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은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그저 그렇다 35.1%로 슬로시티가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다 32.5%, 매우 그렇다 10.2%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6.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슬로시티 운영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슬로시티의 운영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시티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정도를 잘 모르겠다고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수치화한 경우 평균은 3.40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슬로시티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정도

	빈도	구성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10	3.8	3.40/5.00
조금 그렇지 않다	24	9.1	
그저 그렇다	93	35.1	
조금 그렇다	86	32.5	
매우 그렇다	27	10.2	
잘 모르겠다	18	6.8	
결측	7	2.6	
계	265	100.0	

한편, 슬로시티가 상주의 발전에 기여할 정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정도를 기반으로 하는 세부사업들의 중요도 차이의 분석에서는 모든

요인들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각각의 사업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의 슬로시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이고 보다 많은 적극성을 띄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에 따르면, 슬로시티 이해정도에 따른 차이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화부분에서 가장 큰 집단 간의 차이(F값 13.624, 유의수준  $p<.000$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친환경 생활기반(F값 7.278, 유의수준  $p<.000$ ), 주민참여(F값 5.519, 유의수준  $p<.000$ ), 관광기반(F값 5.428, 유의수준  $p<.000$ ), 슬로시티 운영체계의 구축(F값 4.083, 유의수준  $p<.000$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슬로시티에 대한 기대정도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인식의 차이

요인	집단구분						전체 평균	F값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슬로시티 운영체계	2.883	3.618	3.498	3.760	3.833	3.398	3.600	4.803***
지역 특성화	3.129	3.715	3.778	4.242	4.423	3.686	3.964	13.624***
친환경 생활기반	2.650	3.614	3.456	3.747	3.824	3.111	3.550	7.278***
주민참여	2.933	3.653	3.641	3.972	4.064	3.648	3.769	5.519***
관광기반	3.167	3.625	3.620	3.917	4.000	3.278	3.717	5.428***

\* $p<.05$ , \*\* $p<.01$ , \*\*\* $p<.001$

### 4.3. 이해집단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 인식

소속된 이해집단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특성화의 요인에서만 집단별 차이(F값 6.932, 유의수준  $p<.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특성화 요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공무원집단이 4.2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핵심지역의 주민 3.922, 주변지역 주민 3.868, 관광관련사업체 3.809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핵심지역주민의 경우, 지역특성화 부분에서만 높은 수치의 중요성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대부분 전체평균 이하의 중요성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어, 슬로시티의 지정으로 인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로시티의 추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소속된 이해집단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성인식의 차이

요인	집단구분				전체 평균	F값
	핵심지역 주민	공무원	관광관련 사업체	주변지역 주민		
슬로시티 운영체계	3.424	3.704	3.629	3.624	3.600	1.716
지역 특성화	3.922	4.298	3.809	3.868	3.968	6.932***
친환경 생활기반	3.403	3.717	3.554	3.562	3.562	1.681
주민참여	3.667	3.936	3.688	3.782	3.770	1.479
관광기반	3.602	3.784	3.807	3.722	3.732	.931

\* $p<.05$ , \*\* $p<.01$ , \*\*\* $p<.001$

## 5. 결 론

### 5.1. 슬로시티 상주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

슬로시티의 도입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업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본연구의 실증조사 결과는 향후 상주 지역이 본격적으로 슬로시티 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고려할 만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슬로시티를 통한 지역의 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가장 선호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지역의 특성화 사업이다. 친환경 농특산품의 개발과 향토음식의 상품화, 자연생태의 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상주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슬로시티를 이용한 지역상품의 브랜드화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 참여와 관광기반에 대한 높은 요구 역시 슬로시티를 이용한 지역 상품 of 부가가치 증가와 수익모델의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목표에 지향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슬로시티에 바라는 점은, 슬로시티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증대와 그러한 수익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슬로시티에 대한 낮은 이해와 지역의 특성화와 관광개발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높은 중요도의 인식은 결국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환언하면, 이들에게 주민참여란 공동의 가치를 위한 의사결정이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해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슬로시티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열망은 친환경적 또는 느리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한 지역의 발전이라는 슬로시티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슬로시티의 운영체제 정비와 친환경생활기반에 대한 낮은 중요성의 인식들은 친환경건축과, 교통시스템, 지역 내 네트워크 및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류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함양과 성장이라는 내적인 성장을 도외시한 채 관광사업 등을 통한 외적 또는 양적 성장에 보다 큰 가치를 두어, 슬로시티의 지향 자체에 불균형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즉, 느낌과 친환경을 지향하는 슬로시티를 매개로 한 지역개발의 효율성의 추구라는 부조화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슬로시티의 이념에 대한 홍보부족 또는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강조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공무원 집단을 제외한, 이안면, 함창읍, 공검면 등의 핵심지역 주민들의 세부사업에 대한 낮은 호응 등은 슬로시티를 진행해 가기위한 지역주민의 관심 자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상주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슬로시티의 추진과 운영의 부작용인 것이다.

현재 슬로시티를 운영하는 주체가 상주시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민의 관심부족은 지역주민에게 슬로시티의 운영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상주시 스스로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주시의 선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단순히 슬로시티의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슬로시티의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슬로시티의 독립적인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슬로시티의 가치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져 가야한다.

무엇보다 슬로시티를 슬로시티답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이 가진 스스로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이 슬로시티가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주도에 의한 지역의 성장이며, 진정한 주민참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참여를 위해서는 슬로시티의 운동이 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슬로시티의 가치가 해당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모두에 의해 공유되어야만 하는 가치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슬로시티운동의 운영이야말로 현재 슬로시티 상주가 가진 부조화의 요인들을 해결하고,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 5.2. 결론

본 연구는 새롭게 슬로시티로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주를 대상으로 하여 슬로시티 상주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세부 사업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중요도 인식과 선호를 실증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주지역이 슬로시티를 운영해 나아감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바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과 제언의 도출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통해 논의되어온 주민참여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슬로시티의 지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도, 기대심리, 소속집단에 따른 세부사업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온 주민참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전문성 부족, 개발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슬로시티 상주의 지역주민들은 슬로시티의 운영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 중, 지역특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정도, 기대심리, 소속집단의 차이에 근거한 중요성의 인지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슬로시티에 이해가 높고, 기대가 높을수록 각각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슬로시티의 운영의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정리하였다.

향후, 슬로시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집단 등을 통해 나타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슬로시티가 직접 시행되고 있는 핵심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을 근거로 슬로시티 본연의 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 고유성의 제고와, 네트워크 확대,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이상이 현재의 운영의 형태에서는 위협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슬로시티 정신의 전파와, 주민의 리더쉽을 이용한 자발적인 추진조직의 구성 등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형태의 슬로시티를 운영해 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슬로시티 상주의 진행은 아직도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주민의 주도에 의한 자발적인 슬로시티의 운영을 위한 지역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슬로시티 상주에서 나타나는 다소 부정적인 성과의 가능성은 비단 상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또한 상주의 슬로시티운동이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기의 성과 또는 긍정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으로 이해되어, 그리 부정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느림'이라는 슬로시티의 기본 이념에서 나타나듯, 꾸준한 주민 교육과 홍보활동,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그에 맞는 성과 또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신겸, & 도경록. (2011). 슬로시티 관광개발의 실효성 평가—증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3), 287-306.
- 강신겸. (1999). 지역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 유형 및 협력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1, 45-59.
- 고승익, & 홍봉기. (2004). 관광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26, 119-143.
- 김사영. (1998).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목표가치 설정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연구*, 11, 5-30.
- 김사영. (2009). AHP기법을 활용한 지역관광개발 사업 특화계획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3), 7-22.
- 김성진. (2002). *생태관광진흥방안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연구원.
- 김혜민. (2006). 농촌마을 새발 사업의 전개와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산청 남사 전통테마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3(3), 1-11.
- 김혜천. (2000).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수준과 주민참여의 차이성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4(1), 3-18.
- 문성민. (2004). 산촌관광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이해관계자 역할 관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6, 179-195.
- 박경문, 임은영, & 조영태. (2010). 한국형 슬로시티 인증 평가 항목 개발 연구. *국토계획*, 45(3), 47-59.
- 박희정, 장희정, & 손대현. (2008).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 슬로시티 가능성 연구. *CERI Entertainment review*, 10, 2-28.
- 송미령, & 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용석, & 이태희. (2005). 지역축제 이해집단 분석틀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해집단의 역할관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4), 295-312.
- 안종철, & 이성호. (2003). 관광단지개발에 있어서 주민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동부산권 관광단지: 기장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연구보*, 14, 89-98.
- 안종현. (2007).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장흥군 진북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197-210.

- 윤화영, & 김동석. (2008). 산촌지역 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지역과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3), 280-288.
- 이경희. (2004). 농촌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문화관광연구*, 6(1), 333-343.
- 이연택. (2004). 국가관광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43-160.
- 이경록, & 안종현. (2005). 그린투어리즘과 관광마을 만들기: 이론과 실제. *지리학논총*, 45.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197-209.
- 장희정. (2007). 슬로시티 도입을 통한 대안 관광모색 *CERI Entertainment review*, 8, 89-110.
- 전상영, & 현근.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에 대한 시행지역 주민의 기대심리분석: 충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1), 83-116.
-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승현. (1999). 지역개발정책의 형성과 지역주민의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태, 최상희, 장인석, & 박경문. (2007). 한국형 슬로시티 추진전략. *토지연구*, 24, 97-130.
- 홍성화.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정책에 대한 지역이해집단의 협력방안. *관광학연구*, 27(2), 177-195.
- Alipour, H. (1996). Tourism Development within Planning Paradigms: The Case of Turkey. *Tourism Managemnt*, 17(5), 367-377.
- Bramwell, B., & Sharman, A. (1999). Collaboration in Local Tourism Policy-Mak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92-415.
- Fallon, L. & Kriwoken, L. (2003). Community Involvement in Tourism Infrastructure—the case of the Strahan Visitor Centre. Tasmania. *Tourism Management*, 24(3), 289-308.
- Jamal, T. (2011). Conflict in Natural Area Destinations: A Critique of Representation

and “Interest” in *Participatory Process*, 6(3), 352-379.

Jamal, T., & Get. D. (1995). Collaboration theory and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186-204.

Keogh, B. (1990).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2), 449-465.

Timothy, D. (1999). Participatory Planning: a view of tourism in Indones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71-391.

Tosun, C. (2000). Limited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Tourism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21(6), 613-633.

Yuksel, F., Bramwell, B., & Yuksel, A. (1999). Stakeholder Interviews and Tourism Planning at Pamukkale, Turkey. *Tourism Management*, 20(3), 351-360.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http://www.sangju.go.kr/)).

한국슬로시티본부([www.cittaslow.kr/](http://www.cittaslow.kr/)).

논문투고일: 2011. 11. 30

1차수정일: 2011. 12. 6

게재확정일: 2011. 12. 12